

제10회 '젊은 과학자상'

# 발전 잠재력 뛰어난 젊은 과학자 4명 선정

서울대 수리과학부 김인강 부교수,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박동수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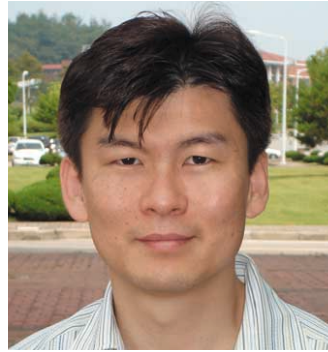
KAIST 화학과 이효철 부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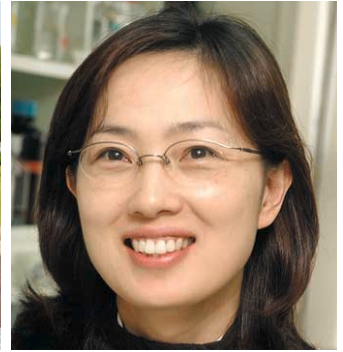
김인강 부교수



박동수 부교수



이효철 부교수



김빛내리 조교수

**과** 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제10회 젊은과학자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김인강 부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박동수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이효철 부교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조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중순부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국내 젊은과학자 중 가장 우수한 업적을 이룬 18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1차 전문분야별 심사, 2차 군별심사를 거쳐 과학기술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됐다.

**수학 분야**의 김인강 교수는 위상수학, 특히 3차원 다양체의 위상수학 및 기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상급의 젊은 수학자이다.


최근에는 모스토크 강성 현상을 새롭게 조명해 세계 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물리학 분야**의 박동수 교수는 국내 입자이론물리학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탁월한 젊은 연구자로 자기전하입자 초대칭 곱립자 등 강한 결합과 관련된 물리현상 규명에 많은 업적이 있고,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홀로그래프원리인 '게이지-중력 대응관계' 등 양자중력 현상을 이해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화학 분야**의 이효철 교수는 '시간분해 엑스선 회절'을 개발해 용액상에서 분자구조를 실시간 관찰한 연구 결과와 결정상에서 단백질의 구조동역학의 실시간 관찰 결과로 세계 과학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이 연구 결과를 2005년 8월과 5월에 각각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와 미 국립과학원회보에 단독책임(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생명과학 분야**의 김빛내리 교수는 마이크로RNA 연구분야를 개척한 선도적 연구자로서 마이크로RNA 생성과 작용기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마이크로 RNA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는 암생물학, 기능유전체학과 신약개발, 유전자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젊은 과학자상은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 실적이 뛰어난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지난 1997년부터 자연과학분야와 공학 분야에서 각각 4명씩을 격년제로 선정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장과 5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의 연구장려금이 지급되며, 현재까지 총 34명이 배출되었다. 

글 | 편집실